

신라 진표율사 연구 ()

점찰의 () 계의와 방법

A Study on ven . Chin - pyo of Shilla Dynasty ()

저자 (Authors)	채인환 In Hwan Chae
출처 (Source)	불교학보 24 , 1987.12, 37-57(21 pages) BUL GYO HAK BO 24 , 1987.12, 37-57(21 pages)
발행처 (Publisher)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Institute for Buddhist Cul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93108
APA Style	채인환 (1987). 신라 진표율사 연구 (). 불교학보, 24, 37-5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25.137.52.*** 2021/09/23 14: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眞表律師研究(Ⅱ)

—占察의 戒義와 方法—

蔡 印 幻

- | | |
|------------------|--------------|
| 小 序 | 2. 木輪相의 占察方法 |
| Ⅱ. 懺悔戒法の 所依經과 教義 | 小 結 |
| 1. 占察經의 戒義와 懺悔法 | |

小 序

‘占察善惡業報經’이 內容의 組織에 관한 것이라든가, 혹은 撰述의 成立에 관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래로부터 僞經이나 아니냐 하는 것이 오랜 동안 論難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經이 中國에서 유행을 거듭하였으며, 또 新羅에 있어서는 眞表에 의하여 懺悔戒法이 확립되는 기본이 되어서 新羅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바르고 착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이룩한 역할과 그 공적은 매우 큰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똑 같이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論難의 대상이 되어 오면서도 여전히 大乘佛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梵網經’이나 ‘首楞嚴經’과 같은 諸經과 함께 그 존재가 결코 적지 않다 하겠다.

본래는 地藏教義란 來世의인 面 보다는 오히려 現世의인 教義가 더 主要性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地藏信仰에 있어서의 現世利益의인 面을 가장 높이 들어내고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占察經’인 것이다. 그리고 眞表의 懺悔戒法이 修懺과 受戒에 의하여 신앙생활을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게 해서 현세에 이익을 주는 점이 너무나 풍부하였음을 볼 때에 地藏信仰과 아울러 彌勒下生信仰이 지니고 있는 이菩提하는 自利에 관한 修行은 追求함이 없이, 오로지 下化衆生하려는 利他行만을 한정 없이 精進하는 大悲行의 實踐者로 가리키는 것인데, 新羅에서 亡身修懺의 수행을 실천하고, 地藏과 彌勒의 兩聖人으로부터 感得한 戒法을 占察法이라고 하는 가장 현세적인 방법을 쓰면서, 오직 일생을 중생 교화에만 시종일관하게 정진한 眞表의 行業은 바로 地藏教義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菩薩行을 스스로 實踐하여 具現하려고 努力한 生涯였

다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地藏이나 彌勒 또는 다른 諸大菩薩에 대한 菩薩觀, 그리고 地藏三經 또는 諸大乘經典에 대한 經典觀 같은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받아 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로 엇갈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이에 대하여 史實을 優先으로 하여 연구하는 입장, 또는 文獻學的·考證學的으로 연구하는 입장, 그리고 人間的인 면에서 연구하는 입장 등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며, 그런 까닭에 地藏菩薩이나 彌勒佛은 釋尊을 理想化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혹은 佛教精神을 구체적으로 人格化한 것이라 보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나아갈 바 구경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든가, 자기의 자체가 바로 그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라든가 하는 등으로 그 견해가 같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들마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한 진실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어떠한 뜻으로서이든 간에 다 상징적으로 보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한 아니다.

그런데 經典에서는 우리 중생들의 그같은 갖가지로 보고 받아들이는 여러 견해들이 어떠한간에 彌勒佛과 地藏菩薩 그리고 諸佛 諸菩薩들이 실재하시는 존재로써 일체 중생을 구제해주신다고 설하고 있다. 그리고 眞表를 비롯한 많은 東西와 古今의 先人들의 傳記에 대해서도 후세에 있어서는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만일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눈 앞에 보며 사는 모든 것(一切諸法)과 그리고 나(自我)를 참된 것인 줄로 믿고, 그것을 實在化하여, 그것이 確實하고 不變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思考方式을 尺度로 삼아 가지고 經典을 보거나 헤아리거나 한다면, 그 때 일체의 經典은 여지없이 다 한낱 옛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이제까지는 확실한 것인 줄로 파악하고 있었던 自我다 萬法이다 하는 것이 사실은 다 無常하며 虛妄한 것임을 徹見하여 바로 알게 되면 그 때 비로소 모든 經典의 敎說은 眞理로부터 眞實이 되며, 佛菩薩의 存在는 衆生이 濟度받기 위하여 自進해서 스스로를 믿고 맡길 수 있는 聖賢이 되며, 先師들의 行蹟은 나의 스승으로써 다시 생생하게 내 앞에 되살아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占察經’을 연구하고, 眞表의 行蹟을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그와같은 분명한 기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견해로서는 ‘모두가 황당 무제한 記事로 가득 차 있다.’는 비평까지도 듣게 되는 眞表의 傳記 가운데서 眞實을 찾아내며, 또 眞表의 占察懺悔戒法의 思想을 千載후의 오늘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밝혀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Ⅱ. 懺悔戒法の 所依經과 教義

1. 占察經의 戒義와 懺悔法

‘占察經’을 달리 ‘地藏菩薩業報經’이라고도 또는 ‘大乘實義經’¹⁾이라고도 부르며, 上·下의 兩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上卷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堅淨信菩薩이 佛陀에게, 正法이 滅하고, 像法時代가 끝나려 하는 末世에 있어서 薄福하고 여러 가지 苦惱가 많은 衆生들에게 開示하여 化導해 나아가야 할 方便에 대해서 說法해 주시기를 간청하였을 때, 佛陀께서는 과거의 무량한 보살행에서 쌓은 本誓願力을 의지하여 五濁 惡世의 衆生들이 구하고 있는 바를 만족하게 해주시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체의 重罪와 障碍를 없애주는 善安慰說者이신 地藏菩薩로 하여금 그 請問에 대답하게 하는 형식으로써 이 ‘占察經’의 緣起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地藏菩薩은 이에 대하여 佛滅뒤의 사악한 세상에서는 모든 佛子들이 因果法에 대하여 결정적인 신심을 일으키지 못하고, 善法을 修學하지 아니하며, 四聖諦·十二因緣·無生無滅의 법을 바르게 관찰하지 못하는 까닭에, 마침내 十惡根本의 죄악을 짓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애가 생겨서 생각이 어지러워지며, 道業을 닦는 일을 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末世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장애가 일어날 때에는 마땅히 木輪相法을 사용하여, 宿世의 善惡의 業報과 現世의 苦樂과 吉凶 등의 일을 占察토록함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며, 따라서 業이 集合하는 것도 마음에 따라 그 業相이 나타나며, 또한 그 결과가 이루어지되, 그것은 조그만치도 어긋남이 없어서 다르게 相應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자기 마음 가운데 잘 알고서 善惡의 業報을 占친다면, 의심 나거나 결정 짓지 못하는 일을 분명히 결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 占法을 배워야 하며, 도리어 세간에서 점치는 것과 같이 따라 행하거나, 탐착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답하고는, 먼저 木輪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고, 다음에는 十善과 十惡을 기록한 十箇의 第一木輪相에 의하여 宿世의 善惡業種의 차별을 占察하고, 身·口·意의 三業을 기록한 三箇의 第二木輪에 의하여 宿業의 強弱大小의 차별이 어떠한가를 占察하여, 根本의 一法界를 요달하지 못하는 까닭에 無明이 일어나서 妄境을 나투게 되고, 또한 六根·六塵·六識 등이 생기게 되는 까닭에, 六個의 第三木輪相에 의하여 三世에서 받은 果報의 차별을 占察한다면, 百八十九種의 善惡의 차별있는 相이 나타나게 됨을 說한 다음에, 至心으로 학습하여 身·口·意의 三業을 청정하게 하므로써 갖가지의 장애를 소멸하게 하기 위한 戒學으로서의 懺悔法과 三種의 戒聚를 總受하여야함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1) ‘開元釋教錄’卷7(大正藏 55·551·a).

만약 먼저 懺悔하여 宿世의 諸業을 淸淨케 함이 없다면, 여러 가지 障礙 때문에 禪定과 無相의 智慧를 修習할 수가 없을 것이다. 懺悔法에는 懺悔·隨喜·勸請·廻向의 四悔로써 一心으로 過去七佛과 五十三佛 및 十方三世의 諸佛에게 敬禮한다면 반드시 障礙를 除去하여 淸淨함을 얻게 될 것이다. 三種의 戒聚, 즉 大乘三聚戒를 받으려 하여도 善好한 戒師가 없을 때는, 十方의 諸佛菩薩를 證師로 청하여 十根本重戒(十善道)와 三種戒聚(三聚淨戒)의 戒相을 모두 擧稱하고 自誓하여 스스로 受戒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總受하므로써 波羅提木叉의 戒를 받은 것과 같이 比丘·比丘尼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二十歲가 未滿인 沙彌·沙彌尼·式叉摩那是 자기 받아야 할 十戒나 六法戒를 別受하고, 滿二十歲가 되었을 때에 總受하게 된다. 그렇지만 단일 懺悔를 행하였다 하더라도 至心이 되지를 못하여 善相을 볼 수가 없었을 때는, 가령 戒를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戒를 얻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說하고 있다. ‘占察善惡業報經’은 여러 가지 單經이 集合하여 成立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大方等大集經’의 계통에 속하는 것이다.²⁾ ‘大集經’이 차츰 增大하여 發展하면서 이 계통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原形인 ‘大集經’에서 사용한 방법을 따라서 他經을 採入하여 自體를 增大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또 다른 하나는 既成의 ‘大集經’이 母胎가 되어서 順次로 새로운 子經을 만들어 나아갔던 것인데, 그 가운데 第二의 계통에서 나온 ‘日密分’³⁾이 발달하면서, ‘日密分’에서 ‘大方廣十輪經’이 생겼고,⁴⁾ 이 ‘十輪經’으로부터 ‘占察經’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說法者가 地藏菩薩이며, 특히 十善을 戒의 근본으로써 중요시하여, 波羅提木叉을 大乘菩薩戒의 攝律儀戒로서 인정하는 등은 ‘大方廣十輪經’에 통하는 바이지만, 聲聞七衆의 別解脫律儀戒를 菩薩의 律儀로 간주하였고, 또한 三種戒聚의 自誓受를 인정하는 것은 ‘菩薩地持經’에서 온 것이다.⁵⁾ 그리고 ‘菩薩地持經’에서는 聲聞律儀戒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菩薩의 律儀로써 四重四十二犯事를 따로 독자적으로 創說하고 있음에 비하여,⁶⁾ ‘大方廣十輪經’에서는 菩薩의 律儀로써 別途의 戒를 施設하지 않고 있는데, ‘占察經’에서도 이것을 본따서 一戒를 두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三種戒聚의 各各의 名稱에 대해서도 瑜伽論에

2) ‘占察經’은 ‘大方等大集經’의 系統에 소속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高麗大藏經에서는 第7卷의 大集部에 收藏되어 있고, 大正大藏經에서는 第13卷의 大集部에 收藏되어 있다.

3) ‘日密分’은, 高麗大藏經 第7卷에 있는 ‘大方等大集經’에, 卷第31, 日密分中 護法品 第1로부터 卷第33, 日密分中 分別品 第4之2까지에 編入(高麗大藏經 第7, pp. 312~337)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卷第34, 日藏分 護持正法品 第1로부터 卷第45, 日藏分 護塔品 第13까지(高麗大藏經 第7, pp. 337~428)는 同一한 內容이다. 다만 日藏分の 文義가 더 增廣되어 있을 따름이다(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p. 288의 以下를 參照 바람).

4) 西義雄, ‘船若經における菩薩の理念と實踐’ 第7節을 參考바라(‘大乘菩薩道の研究’, p. 137).

5)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p. 366.

6) ‘菩薩地持經’ 卷4 (大正藏 30·910).

‘解深密經’에서는, 三種戒가 法數의 한 종류로써 擧名되어 있을 뿐이며, 별다른 考察이나 說明이 되어져 있지 않다. 아마도 여기서는 이것을 특별하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成立되어 있던 三種戒를 ‘解深密經’에서는 그 이름만을 採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데 ‘解深密經’에서의 이러한 三種戒를 이어 받아서 발전시킨 것이 ‘瑜伽論’의 三種淨戒이다. 따라서 ‘瑜伽論’에서 三聚淨戒의 第一律儀戒를 七衆의 別解脫律儀라고 規定한 것은 ‘瑜伽論’의 獨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니, ‘解深密經’에는 그와 같은 說明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三聚淨戒가 이 같이 발전된 것임을 생각한다면 ‘瑜伽論’에서 律儀戒의 內容을 七衆의 別解脫律儀라고 規定했다고 해서 이것을 總體視하여 여기에 얽매는 것은 그다지 타당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平川彰, ‘初期大乘佛敎の研究’, p. 449).

서는 律儀戒·攝善法戒·饒益有情戒⁷⁾이고, ‘解深密經’에서는 轉捨不善戒·轉生善戒·轉生饒益有情戒로 되어 있으나,⁸⁾ ‘占察經’에서는 攝律儀戒·攝善法界·攝化衆生戒⁹⁾로 되어 있다. 攝律儀戒라고 하는 이름은 隋의 이전에는 오직 ‘菩薩瓔珞本業經’¹⁰⁾에만 나오는 것이고, 또한 攝化衆生戒라고하는 이름은 다른 경전에 나오는 三聚戒의 名稱에서 볼 수 없고 ‘占察經’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三聚淨戒의 名稱은 攝律儀戒·攝善法戒·攝衆生戒(攝化衆生戒에서 化字가 없다)¹¹⁾이며, 이것이 ‘占察經’의 名稱과 같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하겠다.

‘占察經’에서는 受戒義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만약 중생이 摩訶衍道를¹²⁾ 배우고자 하여, 菩薩의 根本重戒를 받기를 구하며, 또한 在家와 出家에게 모두 해당되는 禁戒인 攝律儀戒·攝善法戒·攝化衆生戒를 總受하려고 원하더라도 善好한 戒師가 될 수 있는 널리 菩薩法藏을 잘 아는 먼저 수행한 분을 만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오히려 至心으로 道場 안에서 恭敬히 供養하고는 十方의 諸佛菩薩을 仰告하여 請해서 證師로 받들고 一心으로 願을 세워서 戒相을 稱辯하되, 먼저 十根本重戒를 說하고, 다음에 三種의 戒聚를 總擧하여 自誓하면서 受戒한다면, 이와 같이 하여서도 得戒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未來世에 여러 衆生들이 出家하려 하거나 혹은 이미 出家하였더라도, 만약에 善好한 戒師와 淸淨한 僧衆을 만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마음이 疑惑하여 法대로 禁戒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혹은 바로 無上心을 발하였고, 身·口·意가 淸淨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剃髮하고 法衣를 입은 뒤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菩薩律儀인 三種의 戒聚를 自誓하여 받는다면 이것은 곧 波羅提木叉에 의한 出家의 戒를 받은 것과 같아서 比丘나 比丘尼가 될 수 있다.

고 說하므로써, 善好한 戒師와 證師가 될 淸淨한 僧衆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면서도 自誓하여 受戒하는 法을 주로 자세하게 말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 당시의 新羅에 있어서는 이미 慈藏律師가 十餘名の 제자들과 함께 入唐하여 淸涼山에서 瑞相을 感得하고는 다시 終南山에 있으면서 戒律을 精修하고 歸國한 뒤에 如法하게 戒壇을 施設하여 四方에서 來到하는 道俗들에게 授戒하여 濟度하므로써 온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受戒하여 奉佛하는 수가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에 이르게 되었고, 머리를 깎고 出家하여 得度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갔다고 하는 상황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대였기¹³⁾에 眞表가 受戒하려 하였을 때에 善好한 戒師와 證師가 될만한 淸淨僧衆이 없었을 리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眞表의 스승되는 崇濟가 그 제자에게 구태어 受戒하기 위한 엄격한 懺悔修行을 시켜서 好相을 얻으므로써 聖人으로부터 직

7) ‘瑜伽師地論’ 卷40(大正藏 30·511·a).

8) ‘解深密經’ 卷4 (大正藏 16·705·c).

9)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 17·904·c).

10) ‘菩薩瓔珞本業經’ 卷下(正藏 24·1020).

11) 耘虛龍夏, ‘佛敎辭典’의 三聚淨戒의 項目을 參照하라(佛敎辭典, p. 425).

12) 大乘菩薩道를 말함.

13) ‘三國遺事’ 卷4, 慈藏定律條(大正藏 49·1005·b·c).

집 授戒하심을 感得하여 受戒토록 하였다는 데에 매우 커다란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즉 崇濟는 자기자신부터가 일찌기 入唐하여 五台山에서 修儼하여 文殊菩薩에게서 戒를 感受하였기 때문에 제자인 眞表에게 대해서도 宿世의 障礙를 여이고 戒根을 淸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스스로 發奮하므로써 자기 자신에게 本有無作의 戒體를 具足하고 있음을 自覺케 하므로써 利他的 大慈悲行을 일으킬 수 있는 懺悔와 受戒를 하도록 하려는 意圖가 있었던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으니, 이것은 崇濟가 眞表에게 이르기를,

네가 戒法을 彌勒과 地藏의 兩聖에게 懇求하여 懺悔해서 친히 戒法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 流傳토록 하라.¹⁴⁾

고 教誡하고 있는 데서도 그러한 뜻이 나타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 受戒하기 위해서 懺悔法을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占察經’에서 다음 같이 말하고 있다. 즉 大乘의 信心을 발하여 大乘佛敎를 받들어 생활하는 사람으로써 菩薩道를 행하기 위하여 淸淨妙戒인 菩薩戒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미 벌써 壇上의 重罪를 지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은 곧 如法한 懺悔를 勤修하여야 한다. 懺悔法을 勤修하려는 사람을 조용한 곳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낮 동안에는 聖人의 이름을 부르면서 一心으로 過去七佛과 五十三佛 그리고 十方三世의 一切諸佛과 法藏과 賢聖에게 敬禮하고, 또 다시 地藏菩薩을 稱名하고 敬稱한 뒤에,

내가 이제 懺悔한 다음에는 다시는 重罪業을 짓지 아니하리라. 만약 無始劫來로 十惡四重·五逆·謗三寶 등의 一闡提가 되는 重罪를 지어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罪業의 本性은 虛忘한 顛倒된 마음에서부터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定實한 것 아니며, 本來가 空寂한 것이므로 원하옵건대 衆生들과 다 함께 같이 속히 참 마음의 근본을 깨달아서 이러한 罪根들을 滅除하려 하오니 證知하시고 護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祈念을 仰告하고, 다시 勤請과 隨喜와 廻向의 願을 발한다. 또 밤에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一心으로 名號를 誦念하면서 悔過하기를 發願하는데, 惛睡가 많은 사람은 道場을 旋遶하면서 誦念한다. 이와 같은 懺悔法을 게으르지 않고 매일 같이 행한다면 罪障이 가벼우며, 意力이 굳센 사람은 七日間이라도 淸淨하게 되어 諸障이 消滅하게 된다. 그러나 衆生들의 諸根의 利鈍함과 또한 罪業의 輕重에 따라서 二七日·三七日 내지는 七七日 동안에 淸淨을 얻게 되거나, 혹은 더 오래 걸려서 百日·二百日 내지는 千日を 하여야 겨우 淸淨함을 얻게 되는 등의 차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장 鈍根이며 罪障이 지극히 重大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身命을 잃게 됨을 돌아봄이 없다면, 결코 쉬거나 물러나는 일 없이 懺悔法을 용맹스럽게 닦아서 精進해 나아간다면, 千

14) 上同, 眞表傳簡條(大正藏 49·1007·b).

日 동안에는 반드시 淸淨함을 얻어서 滅罪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수행하여 淸淨하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懺悔法을 수행하기 시작하여 七日이 지난 뒤에는 매일 아침마다 第二의 三輪相法에 의지하여 籤子를 세번 던져서 占察하되, 만약 身·口·意가 모두 純善하게 나온다면 그것은 淸淨함을 얻은 것이며, 至心으로 행하여 三業의 善相을 얻었을 때에는 光明이나 異香이 遍滿하거나, 또는 聖인이 出現하시어 摩頂授記하시는 등의 好相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至心으로 하지 않는다면 好相을 얻지 못하는 것이며, 만약 三業의 善相을 얻지 못하였는데도 먼저 好相을 보거나 듣게 된다면 그것은 虛妄한 것이며, 따라서 懺悔를 수행하더라도 至心이 되지 못하고, 善相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戒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菩薩戒를 받기에 앞서 懺悔法을 행하는 것은 罪障이 있는 사람이 만약 懺悔하여 그것을 淸淨케하는 일 없이 受戒하여 定慧를 수행하려 하더라도 障礙가 많을 뿐만 아니라, 宿世의 惡習 때문에 반드시 현세에서도 많은 惡業을 또 다시 지어서 重禁을 毀犯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發心하여 菩薩戒를 받고 禪定과 智慧를 修習하려고 한다면, 먼저 占察法에 의하여 宿世에 지은 자기의 罪業이 얼마나 되는지, 그 多少와 輕重을 觀察하고, 그것에 따라서 懺悔法을 행한 뒤에 受戒토록 하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占察經’에서의 이와 같은 法으로 비추어 볼 때에 眞表가 행한 亡身修懺의 수행이야말로 ‘占察經’의 懺悔法을 바로 그대로 행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後世에다 眞表의 亡身修懺의 行蹟을 傳하는데 있어서도, 그 傳記를 쓰는 撰者들도 역시 經에서 說한 懺悔法을 依用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眞表에 의하여 행해지고, 또 新羅에 널리 퍼지게 된 이와 같은 懺悔를 행한 뒤에 戒를 받게 하는 傳統은 길이 後世에까지 韓國佛敎 속에 傳해지고 있어서 私事에 관련되는 일이기는 하나, 筆者도 1952년에 出家하여 沙彌戒를 받는데 있어서 受戒하기 전의 약 1년 동안 매일 저녁 大衆과 함께 佛前禮敬을 마친 뒤에 따로 晚課로써 百八禮懺을 하도록 指示를 받았고, 受戒하기 直前에는 戒師의 敎示에 따라 三千拜의 禮懺을 행한 뒤에 비로소 沙彌戒를 받는 허락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뒤에 약 二箇月이 지나서 菩薩戒를 받을 때에는 大本山인 通度寺에 가서 佛舍利塔前의 金剛戒壇에서 밤낮을 통해서 七千拜의 五體投地하는 懺悔拜禮를 행한 뒤에 菩薩戒를 받은 體驗을 갖고 있는데, 現今에는 이전에 행하던 일을 傳해 듣는 바와 같이 엄격하게 시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또 各寺刹의 전통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이와 같은 懺悔受戒하는 家風은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新羅의 眞表律師의 餘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겠다.

眞表가 新羅의 사람들에게 행하게 한 戒法은 十善의 十根本重戒와 菩薩의 三聚淨戒

를 在家거나 出家거나를 막론하고 通授¹⁵⁾하였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三國遺事’ 卷4의 眞表傳簡에 景德王이 眞表를 宮中에 맞아서 菩薩戒를 받았다고 傳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出家者에 관해서는 ‘占察經’에서도,

만약 出家한다 하더라도 그 나이가 아직 二十歲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마땅히 誓願하여 十根本戒를 받은 다음에 沙彌戒 또는 沙彌尼戒 등의 別戒를 받아야 한다.¹⁶⁾

고 說하고 있으므로, 比丘·比丘尼·式叉摩那 등도 역시 各自의 戒를 別受케 하고, 이것을 菩薩의 三聚戒 가운데 攝律儀戒와 共通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이미 행해지고 있던 戒律과의 調和를 이루게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懺悔法에는 一心으로 過去의 七佛과 五十三佛에게 敬禮한다¹⁷⁾라고 있는데, 이 五十三佛은 稱禮佛名에 관한 ‘決定毘尼經’¹⁸⁾ 그리고 ‘三劫三千佛名經’¹⁹⁾ 등의 諸經을 結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²⁰⁾ 있는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²¹⁾에서 說하고 있는 바, 過去에 이 세계에 먼저 住하여 衆生들을 成熟케 하였던 까닭에 敬禮한다면 四重·五逆·十惡誘法罪 등의 極重罪까지도 滅除케 한다고 하는 功德이 深大한 五十三佛에서부터 나온 것이며, 이에 따라서 中國에서는 五十三佛敬禮의 부분만을 抄出한 ‘過去五十三佛名經’이 있었다고 하며,²²⁾ 高麗大藏經의 第7, 大集部²³⁾에는 ‘觀虛空藏菩薩經’²⁴⁾ 속에 過去 五十三佛名이 있으며, 韓國佛敎에 있어서도 過去七佛과 五十三佛에 대한 信仰이 新羅적부터 있었으며, 지금에도 아직 뿌리 깊게 그 信仰이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占察經’의 下卷에는 大乘으로 향하려는 사람은 먼저 맨 처음에 자기가 행하여야 할 바 根本의 業을 알아야만 하며, 그 根本의 業이란, 一實境界에 依止하여 이것을 信解하는 修行이며, 一實境界란 衆生의 心體가 本來부터 不生不滅하여 自性이 淸淨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性淸淨心이 衆生의 無明暗昧의 熏習하는 因緣을 따라서 妄境界를 現出시키고는 그것에 念著함을 일으키게 되나니, 이러한 妄心은 다시 말해서 一實境界인 法界一相을 了見하지 못하는 마음이며, 無明의 力因에 의

15) ‘瑜伽師地論’ 卷40에 說明하기를, 律儀戒란 諸菩薩이 받는 바 七衆의 別解脫律儀를 말하는 것이며, 七이란 苾芻戒·苾芻尼戒·正學戒·勸策女戒·近思男戒·近事女戒의 7種이다. 이와 같은 7種을 在家와 出家로 二分하여 依止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을 菩薩의 律儀戒라고 이름한다(大正藏 30·551·a)라고 있는 것처럼, 菩薩이 守持하는 律儀戒가 聲聞의 戒와 같기 때문에 이 戒는 在家와 出家에 다 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菩薩의 戒에는 이러한 聲聞의 律儀戒에 다시 더 攝善法戒와 攝化衆生戒를 더하게 된다.

16) ‘古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 17·904·c).

17) 上同(大正藏 17·903·c).

18) ‘決定毘尼經’ 卷1(大藏三 12·37).

19) ‘三劫三千佛名經’은 다음 같은 佛名經 즉 ‘過去莊嚴劫千佛名經’ 1卷(大正藏 14·365), ‘現在賢劫千佛名經’ 1卷(大正 3 14·376), ‘未來星宿劫千佛名經’ 1卷(大正藏 14·388), 등을 總稱하는 것이다.

20)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p. 403.

21) ‘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 1卷(大正藏 20·660).

22) 大野法道, ‘大乘戒經の研究’, p. 404.

23) 高麗大藏經 第7, p. 22.

24) ‘觀虛空藏菩薩經’ 1卷(大正藏 13·677).

하여 妄心이 妄境界를 現出케 하는 까닭에 無明이 滅하면 妄心도 妄境界도 다 滅하게 된다. 그러므로 一切諸法은 마음을 근본으로 하여 生滅하는 것이기 때문에 生滅하는 것은 實體가 없으며, 다만 마음이 內相과 外相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므로 內외의 마음을 總稱하여 眞如第一義自性清淨이라고도 하며 如來藏이라고도 한다. 이 如來藏을 妄想計度하면 衆生이 되며, 信解修行하면 菩薩이 되고, 究竟成就하면 佛이 된다. 그러나 衆生이다, 菩薩이다, 佛이다 하는 것도 世間에 있어서 假設하는 差別相인 것이며, 究竟平等의 一實境界에는 이와 같은 異相이 없는 것이다. 一實境界를 信解하는데 있어서는 二種の 觀道를 修行하여야 하며, 그 가운데 唯心識觀은 鈍根의 사람에게 適應하는 것이며, 眞如實觀은 利根의 사람에게 適合한 修行法이다. 鈍根과 利根의 衆生이 二種の 觀道를 修習한다면, 惡世에 있더라도 障難을 除滅하고 功德을 增長하여 一實境界를 信解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他方의 淨佛國土에도 願求하는데로 往生할 수가 있다고 설하고 있다.

대체로 上卷에서는 戒義와 懺悔의 修法, 그리고 木輪相의 占法을 설하고 있으며, 下卷에서는 懺悔를 修得한 사람이 志向할 바 大乘의 教理와 觀道를 설하고 있다.

2. 木輪相의 占察方法

‘占察善惡業報經’이라는 經名에도 나타나 있듯이 占察法이란 木輪을 던져서 과거 세상에서 지은 바 善惡의 業報 및 현재 세상에 있어서의 苦樂吉凶 등의 일을 점치는 것이며, 그 점을 쳐서 본 결과에 만약 惡業이나 苦果와 凶事 등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장애가 많기 때문에 禪定과 智慧를 修學하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障難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먼저 地藏菩薩을 禮懺케 하므로써 그 懺悔에 의하여 業障을 소멸하고, 戒根을 청정하게 한 뒤에 大乘의 菩薩戒를 받게 하고 다시 禪定과 智慧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占察經’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占察法에 의하여 業報를 占察하는 일이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經이 오랜동안 僞經이나 아니냐는 문제로 論難의 對象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禁書를 여러 번 당하면서도 中國에 있어서 庶民들의 사이에 일반적으로 널리 유행하였던 것은 오직 그 속에 占察法이 있었기 때문이다.

新羅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占察法會가 행해지고 있었고,²⁵⁾ ‘占察經’을 의지하여 修懺求戒의 修行을 한 眞表는 彌勒菩薩로부터 戒를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罪를 懺悔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입고, 眞籤인 第九와 第八의 二籤과 百八의 籤을 주심을 받고서 다음 같은 占察하는 方法을 배웠다고 한다.

25) A.D. 600년에 隋에서 귀국한 圓光法師가 歸戒滅懺의 法으로써 愚迷한 衆生들을 醒脫시켜 주기 위하여 ‘占察寶’를 設置하였다고 그의 傳記에 기록되어 있다.

즉 戒를 구하는 사람은 戒를 받기 전에 二十一日부터 九十日까지의 사이에 기간을 정해서 懺悔하는 修行을 행하여, 그 정해진 기간의 만기가 되는 날에 第九·第八의 二籤과 百八의 籤을 합쳐 가지고 佛前에서 空中에 던져 땅에 떨어진 籤의 樣相에 따라서 滅罪가 되었는지의 與否를 점치게 된다. 만약 百八의 籤이 모두 튀어 흩어지고, 第九와 第八의 眞籤만이 壇의 中央에 남아 있으면, 이것은 곧 上品의 戒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만약 대부분의 籤은 멀리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 몇 개의 籤이 第九와 第八의 眞籤에 붙어 있다면, 그 籤이 어느 煩惱의 이름이 적혀 있는 籤인가를 확인하여, 그 罪를 다시 懺悔한 뒤에 그 煩惱籤과 二眞籤을 함께 던져서 煩惱籤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中品戒를 얻게 되는 것이나, 오히려 그들 煩惱籤이 二眞籤을 덮는다면, 이것은 罪障이 아직 滅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戒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거듭 九十日을 懺悔하여 戒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下品戒이다. 眞籤 가운데 第九는 本有를 표하는 것이며, 第八은 新熏을 표하는 것이다.

‘宋高僧傳’의 百濟國金山寺眞表傳²⁶⁾에는 眞表의 占察法에 관하여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煩惱籤을 百八로 하고 있는 것 같은 점 등은 ‘占察經’²⁷⁾에서 三世果報의 善惡差別의 樣相을 百八十九種으로 나누고 있는 점이나, 또 木輪에 의하여 占察하는 것 등과 그 占察方法이 다르다. 그래서 ‘宋高僧傳’에서는 당시의 中國에서 일반 서민들의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던 占察과 眞表의 占察法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眞表의 傳記에 그의 독특한 占察法을 상세히 기록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眞表의 懺悔戒法에서는 占察法을 떼어낼 수 없는 것이며, 그의 독특한 占察法은 스승인 崇濟에게서 ‘占察經’을 받고, 이것을 의지하여 修懺求戒하는 수행을 하므로써 얻어진 것이었고, 또한 그 教化도 ‘占察經’을 의지하여 創出된 獨自의 占察法을 가지고 行化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戒法과 占察法을 연구함에 있어서 먼저 그 근본이 되는 ‘占察經’의 占察法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占察經’에서의 占察法은 木輪相의 占法이다. 즉 佛滅後의 惡世에 있어서 佛道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 갖가지의 여러 障礙 때문에 憂慮와 疑悔가 增長하므로써 많은 것을 구하다가 오히려 煩惱함이 많아져서 하는 일이 결정되지 못하여, 思想이 擾亂하여 道業을 修行하는 일을 廢止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은 障礙이 있을 때는 이 木輪相의 法을 사용하여 宿世의 善惡의 業과 現在의 苦樂과 吉凶 등을 占察하는 것이다.

木輪相의 法으로 占察하려 할 때는 먼저 占具로 사용할 木輪(木製의 占察具, 혹은 籤子·簡子·柱 등이라고도 함)을 製作하여야 한다. 木輪은 나무를 새기 손가락만한 크기로

26) ‘宋高僧傳’ 卷14 (大正藏 50·793~794).

27) ‘占察善惡業報經’ 卷上 (大正藏 17·902·b).

만들어서 가운데 부분은 四面이 다 正方形이 되도록 하며, 양쪽의 나머지 부분을 끝이 뾰족하도록 연필을 깎듯이 方錐形이 되도록 깎아서, 손으로 잡아 던지면 잘 굴러가도록 만든다.²⁸⁾ 굴러 가기 때문에 輪이며, 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木輪이니, 여기에는 衆生의 疑網을 파괴하여 正道로 轉向케 한다는 뜻이 있다. 이 輪에는 十輪·三輪·六輪의 三種의 輪相이 있으며 각각 그 특징이 다르다. 즉 특히 宿世에 所作한 善惡의 業種의 差別을 占察하려 할 경우에는, 十個의 木輪을 만들어서 十輪相法을 행하게 되는데, 먼저 十輪에다 十善의 이름을 낱낱이 輪의 一面에다 一善씩 쓰고, 또 그 반대편의 面에다 十善과 對比되는 十惡의 이름을 써서 十輪에 十善과 十惡의 業名을 書記한다.²⁹⁾ 十善과 十惡은 一切의 善과 惡을 能攝하고 있는 근본인 까닭에 宿世에 所作한 善惡의 業을 占懺하기 위해서는 十善과 十惡을 쓰게 되는 것이다. 占察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至心으로 十方의 一切의 諸佛과 法藏과 聖賢에게 각각 敬禮하고는, 十方의 一切衆生들이 속히 諸佛을 親近供養하여 正法을 받으며 또 속히 法藏을 受持讀誦하여 如法하게 修行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것을 說하며, 또 속히 聖賢을 親近供養하여 菩提心을 발해서 不退轉에 오름을 얻게 하소서 하는 願을 세운다. 그리고 또 地藏菩薩을 禮拜하고, 衆生이 속히 惡業의 重罪를 除滅하며, 諸障礙에서 벗어나 資生하기 위한 衆具를 充足케 할 수 있도록 하소서 하고 願한다. 이렇게 禮拜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온갖 香華를 가지고 널리 熏供하면서 佛事를 施作하기를 願하며, 十方所有의 一切種種의 莊嚴과 供養具로써 널리 衆生과 함께 奉獻하여 供養하며, 또 供養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隨喜하며, 만약 아직도 供養을 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開導하여 행하게 하기를 願한다. 一切의 衆生과 함께 이와 같은 供養들을 행한 다음에 비로소 六波羅蜜과 四無量心을 成就함을 얻어서 깊이 一切의 法은 本來가 寂靜한 것이며, 無生滅한 것이며, 離念淸淨한 것임을 깨달아 畢竟에 圓滿하게 되기를 祈念한다. 그리고는 다시 또 地藏菩薩을 供養하고, 一心으로 ‘南無地藏菩薩摩訶薩’을 稱念하면서 誦念하는 것이 千念에 이르렀을 때에, “地藏菩薩摩訶薩께서는 大慈大悲로 오직 願컨데 나와 아울러 一切의 衆生을 護念하사 諸障을 속히 除滅하고 淨信을 增長케 하시며, 이제 占察하여 觀하는 바가 實際에 맞도록 相應케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誦念해 마치고는, 손으로 木輪을 잡고 깨끗한 곳 위에다 이것을 던져서, 나타나는 바 業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 宿世의 惡業이 있거든 이것을 懺悔하므로써 對治하고 善業은 이것을 다시 더 進修토록 하

28) 길이 6cm, 너비 2cm 정도의 長四角形의 나무의 양쪽 끝을 약 1.5cm 정도 비스듬히 깎아서 끝이 뾰족하도록 木輪을 만든다.

29) ‘大方廣十輪經’은 涼土의 失譯인데, 여기에 說하기를, 세로이 即位한 刹利種의 灌頂大王이 十輪을 成就하듯, 如來도 또한 十輪의 功德이 成就되어져 있다고 하며, 또 菩薩도 十輪을 成就함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十輪이란 바로 十善이라고 밝히면서, 地藏菩薩을 對告衆으로 삼아서 强황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占察經’에서 말하는 이른 바 十輪法은 아카도 ‘大方廣十輪經’의 十輪說에서 부터 案出되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望月信亨著, 淨土教の起源及び發達, p. 225).

는 것이니, 이것이 占察初輪相法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占察을 행하기 전에 佛·法·僧 三寶에 대하여 供養하는 일을 수행하는 일이며, 또 스스로 誓願을 세우는 일이며, 大乘의 菩提心을 발하는 일이며, 그리고 나타난 罪障을 懺悔하여 對治하는 일이다. 따라서 占察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修行을 행하기 위한 方便이라는 점이며, 經說의 내용 자체도 이러한 입장에서 占察을 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에 만약 또 과거에 행하여 쌓아온 集業의 久近, 所作의 強弱, 大小의 差別 등에 관하여 占察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三箇의 木輪을 만들어서 三輪相法을 행하게 된다. 먼저 만들어진 三輪의 各輪에다 각각 身業·口業·意業의 名을 하나씩 쓰고, 各木輪의 가운데 一面에는 끝까지 이르도록 굵고 긴 一畫를, 그리고 다음 第二面에는 木輪의 끝까지 이르지 않도록 가늘고 짧은 一劃을, 그리고 다음의 第三面에는 굵고 짧은 一劃을 새기고, 다음 第四面에는 가늘고 얇은 一劃을 새긴다. 이것은 第一面과 第二面에다 그리는 것은 善業의 莊嚴함이 마치 劃飾과 같으며, 第三面과 第四面に 새기는 것은 惡業의 衰害함이 마치 損刻과 같다고 하는 뜻을 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書畫의 길고 큰 것은 오래동안 積善을 하여왔기 때문에 善의 行業이 猛利하여 하는 일마다 增上하여감을 나타내며, 가늘고 짧은 것은 積善하기를 오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善의 行業이 아직 微薄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刻畫의 거칠고 길은 것은 오랜동안 習惡을 하여 왔기 때문에 惡의 行業이 增上하여 罪障이 深重함을 나타내며, 가늘고 얇은 것은 善行에서 떠나서 惡法에 물든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惡의 行業이 아직 增上하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약 이 第二의 三輪相으로 占察할 때는 반드시 初의 十輪相으로 占察하였을 때 나타난 業에 의지하여야 한다. 즉 그 業이 身業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身輪相을 던지며, 口業에 속하는 것은 口輪相을, 意業에 속하는 것은 意輪相을 던져야만 하며, 세 가지를 합한 三輪相을 한번에 던져서 通占하여서는 안된다. 初輪相의 業에 따라서 거기에 나타난 善惡의 낱말을 분명하게 念한 다음 所屬되는 輪만을 던져서 占察하게 되는데, 만약 初輪相에서는 身의 善을 얻었으나, 第二輪相에서는 身의 惡이 나타나는 등 前後의 相이 相應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이와 같이 잘못 나타나는 것은 占察하는 사람이 至心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다시 만약 三世 가운데에 있어서의 受報하는 差別을 占察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六箇의 木輪을 만들어서 六輪相法을 행하게 된다. 먼저 六輪의 各輪의 三面に 각각 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十五·十六·十七·十八의 數字를 쓰는데, 이와 같은 여러 數字는 모두가 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一으로써 근본을 삼게 된다. 이것은 一切衆生이 內六根으로써 外六塵을 대하여 六識을 일으켜서 十八界가 되며, 또 六塵 속에 있으면서 違想·順想·非違非順想을 일으켜서 十種의 受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다 自性淸淨心³⁰⁾·如來藏³¹⁾·一實境界³²⁾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一實境界로써 근본을 삼는 것을 나투는 것이다.

三世의 가운데서 받는 果報를 占察하는 데 있어서는 이 第三의 六輪을 세 번 던져서 얻은 合計數로써 善과 惡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第三輪相에는 百八十九種의 三世果報 善惡差別의 相이 있다.³³⁾ 다시 말해서 一實境界란 곧 法界인데, 이 法界를 了悟하지 못하는 까닭에 無明이 일어나서 妄境界를 나타내고 六根·六境·六識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 第三輪相에 의하여 三世의 果報를 占하면 一百八十九種의 差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189 種相이란 다음과 같다.

1. 上乘法을 구하여 물러나지 아니함을 얻으리라.
2. 구하는 바 결과를 현세에 증득 하리라.
3. 中乘法을 구하여 물러나지 아니함을 얻으리라.
4. 下乘法을 구하여 물러나지 아니함을 얻으리라.
5. 神通을 구하여 성취함을 얻게 되리라.
6. 四梵行(慈·悲·善·捨의 四無量心)을 닦아서 성취함을 얻으리라.
7. 世禪(根本四禪의 世間有漏禪)을 닦아서 성취함을 얻으리라.

30) 自性淸淨 등에 관하여, “占察經”의 下卷에 ‘衆生心의 本體는 不生不滅하며, 虛空과 같이 無障無碍하며, 寂靜一味한 自性淸淨心인 것이며, 이것은 또한 無量無邊하며 不可思議한 無漏淸淨功德의 業을 具足하고 있는 까닭에 如來藏이라고도 이름하게 된다. 다만 衆生의 無明이 黯暗薰習하는 因緣에 의하여 妄境界를 現出하고는 거기에 念着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따라서 一心에는 內相과 外相의 二種의 相이 있으며, 心의 內相에는 또 眞과 妄이 있어서 如如不異한 心體의 本相은 眞이며, 起念하여 分別覺知하며 緣慮憶念하는 일을 相續해서 능히 一切種種의 境界를 現生케 하는 것이 妄이며, 이와 같이 해서 나타나는 一切諸法의 種種의 境界가 곧 外相이다. 그런데 妄境界에 執着하고 있음을 衆生이라 하고, 妄想을 떠나서 涅槃을 구하는 道를 수행하고 있음을 菩薩이라 하고, 善行의 修行을 究竟滿足하여 涅槃하심을 佛이라고 하는 것도 世間의 假名言說에 의지하는 까닭에 차별이 있는 것이지 法身의 體는 畢竟에 平等하여, 그러한 差別의 異相이 없음이 一實境界이다”(大正藏 17·907·a~908·a)라고說하고 있으며, 眞과 妄에 대한 이와 같은 說明은 ‘起信論’에서 心眞如心과 心生滅門을 施設하여 始覺과 本覺 그리고 染과 淨의 互顯 등을說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大正藏 32·575~582). 여기에 대하여 望月信亨 博士는 이 ‘占察經’의 下卷에說해지고 있는 것이 ‘大乘起信論’과 비교해 볼 때 그 思想과 說述하는 形式 그리고 所用한 用語까지도 너무나 같아서 거의 ‘起信論’의 組織과 大體를 變換한 것이라고 하던데, 다만 ‘起信論’은 그 組織과 順序 등이 매우 잘 정돈되어 있고 또한 文章과 用語가 아주 精練되어 있음에 반하여 이 ‘占察經’은 그 모든 것이 散漫하고 또한 重複되는 점이 있는 등으로 보아서 어쩌면 ‘占察經’이 먼저 成立되고, 이것을 의지해서 뒤에 ‘起信論’이 成立된 것이나 아난가 생각된다고 하여, 어떻게든 이 ‘占察經’과 ‘起信論’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이 두 經과 論이 모두 中國에서 撰述되었을 것이라는 中國撰述說의 입장에서는 見解를 표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望月信亨著, 淨土敎의 起原及發達, p. 228, 261). 그런데 ‘起信論’의 著者 및 譯者에 대해서는 옛부터 많은 論議가 거듭 되었으며, 근래에 있어서도 佛敎學界에서 한 때 論難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이며, 그럴 때마다 과연 印度撰述이나 中國撰述이냐로 異論이 紛紛하였으며, 대체적인 趨勢로서는 中國撰述說이 有力하기는 하나 아직도 결정적인 결론이 얻어지지 않고 있다(武邑尙邦, ‘大乘起信論講讀’, p. 306, 平川彰, ‘大乘起信論’, p. 16-31 등 參照 바람).

31) 이 如來藏의 法門을 특히 地藏思想에다 결부시킨 것은, 대개 地藏은 地中の 伏藏을 人格化한 菩薩이므로 如來藏敎義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 보고 있다(望月信亨, ‘淨土敎의 起原及發達’, p. 225).

32) 註 30) 參照.

33) ‘占察善惡業報經’ 卷上에 189種의 差別相이 나와 있다(大正藏 17·905·b~906·c).

8. 받으려고 소원하는 바 妙戒를 얻으리라.
9. 일찌기 얻었던 戒를 具足함을 얻으리라.
10. 上乘法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직 信에 住하지 못하리라.
11. 中乘法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직 信에 住하지 못하리라.
12. 下乘法을 구한다 하더라도 아직 信에 住하지 못하리라.
13. 만나게 되는 사람이 모두가 善友가 되리라.
14. 듣고 따르는 바가 모두 正法임을 얻게 되리라.
15. 만나게 되는 사람이 모두가 惡友가 되리라.
16. 듣고 따르는 바가 모두 正敎가 아님을 얻게 되리라.
17. 만나게 되는 사람이 모두가 實德이 있으리라.
18. 만나게 되는 사람이 모두가 實德이 없으리라.
19. 보는 바 뜻이 잘못되지 아니하리라.
20. 보는 바 뜻이 잘못된 것이 되리라.
21. 읽는 것이 잘못되는 일이 없으리라.
22. 읽는 것이 잘못되는 일이 있으리라.
23. 수행하는 바가 잘못되는 일이 없으리라.
24. 보고나 듣는 바가 모두 善相이 되리라.
25. 증득하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진실한 것이리라.
26. 배우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리라.
27. 보거나 듣는 바가 善相이 아니리라.
28. 증득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正法이 아니리라.
29. 얻은 바가 있다면, 이것은 邪神의 것이리라.
30. 능히 잘 설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邪智의 辯才이리라.
31. 玄知(妖鬼의 通力)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非人(妖怪)의 힘이리라.
32. 먼저 지혜로 觀하는 道를 배워야 하리라.
33. 먼저 禪定의 道를 배워야 하리라.
34. 배운 바를 觀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없으리라.
35. 배운 바를 觀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좋은 것이 되리라.
36. 배운 바를 觀하는데 있어서 모두가 좋지 못한 것이 되리라.
37. 배운 바를 觀함에 이것이 모두 宿習이리라.
38. 배운 바를 觀함에 이것이 모두 宿習이 아니리라.
39. 배운 바를 觀함에 이것이 모두 잘 增長하리라.
40. 배운 바를 觀함에 方便되는 것이 적으리라.

41. 배운 바를 觀함에 進趣되는 것이 없으리라.
42. 구하는 바 결과를 現前에서 아직 얻지 못하리라.
43. 出家하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떠날 수가 있으리라.
44. 聞法하기를 구한다면, 敎示를 얻게 되리라.
45. 經卷을 구한다면, 讀誦함을 얻게 되리라.
46. 행하는 바를 觀하건되, 이것이 모두 魔事이리라.
47. 행하는 바를 觀하건되, 모든 일이 성취함을 얻으리라.
48. 행하는 바를 觀하건되, 모든 일이 성취됨을 얻지 못하리라.
49. 大富를 구한다면, 재물이 가득함을 얻으리라.
50. 官位를 구한다면, 마땅히 지위를 얻게 되리라.
51. 長壽하기를 구한다면, 延年함을 얻으리라.
52. 世仙되기를 구한다면, 마땅히 얻게 되리라.
53. 學問하기를 觀한다면, 통달하는 바가 많으리라.
54. 學問하기를 觀한다 하더라도 통달하는 바가 적으리라.
55. 師友를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56. 弟子를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57. 父母를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58. 男女를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59. 賢妻를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60. 同伴을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61. 念憂되는 바를 觀함에 和合함을 얻으리라.
62. 觀하는 바 그 사람이 마음에 원망함을 품으리라.
63. 원망 없기를 소원함에 歡喜를 얻으리라.
64. 和合을 구한다면, 뜻대로 됨을 얻으리라.
65. 觀하는 바 그 사람이 마음에 기뻐하리라.
66.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게 됨을 얻으리라.
67. 사모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되리라.
68. 칭해 부르려는 사람들이 모두 來集함을 얻으리라.
69. 미워 싫어하는 사람들로 부터 떠나게 됨을 얻으리라.
70. 愛敬하는 사람과 가까이함을 얻게 되리라.
71. 한 곳에 모이기를 구하여 觀한다면, 和集함을 얻게 되리라.
72. 한 곳에 모이기를 구하여 觀한다 하더라도, 和集함을 얻지 못하리라.
73. 칭해 부른다 하더라도 모두 來集함을 얻지 못하리라.

74.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이르리라.
75.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머물러서 오지 아니하리라.
76. 觀하는 바 그 사람이 安吉함을 얻게 되리라.
77. 觀하는 바 그 사람이 安吉하지 못하리라.
78. 觀하는 바 그 사람은 이미 그 몸이 없으리라.
79. 만나 보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을 보게 됨을 얻으리라.
80. 구할려고 찾는 것은, 그것을 보게 됨을 얻으리라.
81. 듣고자 하여 구한다면, 吉語를 얻게 되리라.
82. 보고자 하여 구하더라도, 뜻대로 됨을 얻지 못하리라.
83. 의심되는 바를 觀함에 그것이 진실한 것이 됨을 얻으리라.
84. 의심되는 바를 觀함에 그것이 곧 진실하지 못한 것이 됨을 얻으리라.
85. 觀하는 바 사람들이 和合하지 못함을 얻으리라.
86. 佛事하기를 구한다면, 마땅히 하게 됨을 얻으리라.
87. 供養具를 구한다면, 마땅히 얻게 되리라.
88.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 뜻대로 얻어지리라.
89.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얻어지는 것이 적으리라.
90. 구하는 바가 있다면, 마땅히 무엇이든 얻게 되리라.
91. 구하는 바가 있더라도 모두 얻지 못하리라.
92. 구하는 바가 있다면, 조금 얻게 되리라.
93. 구하는 바가 있다면, 뜻과 같이 됨을 얻으리라.
94. 구하는 바가 있을 때는 속히 얻어지리라.
95. 구하는 바가 있을 때는 오랜 뒤에 얻어지리라.
96. 구하는 바가 있다하더라도 損失을 보게 되리라.
97. 구하는 바가 있다면, 吉利를 얻게 되리라.
98. 구하는 바가 있을 때에 고통을 받으리라.
99. 잃은 바가 있을 때, 구하기를 觀하면, 마땅히 얻어지리라.
100. 잃은 바가 있을 때, 구하기를 觀하여도 얻지 못하리라.
101. 잃은 바를 觀할 때, 스스로 돌아옴을 얻으리라.
102. 재앙에서 떠나기를 구한다면, 災難에서 벗어남을 얻으리라.
103. 몸의 병이 없어지기를 구한다면,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104. 갈 곳을 觀함에 장애가 없어지리라.
105. 갈 곳을 觀하더라도 장애가 있으리라.
106. 머무를 곳을 觀함에 安止함을 얻게 되리라.

107. 머물러 곳을 觀하더라도 安止함을 얻지 못하리라.
108. 향하는 곳마다 安快함을 얻게 되리라.
109. 향하는 곳마다 厄難이 있게 되리라.
110. 향하는 곳마다 바로 魔網에 걸리게 되리라.
111. 향하는 곳마다 開化되기가 어려우리라.
112. 향하는 곳마다 잘 開化됨을 얻으리라.
113. 향하는 곳마다 저절로 利得을 얻게 되리라.
114. 노니는 곳과 길에 惱害가 조금도 없으리라.
115. 노니는 곳과 길에 惱害가 많이 있으리라.
116. 통치자와 국민의 사이가 나쁘며, 흉년 饑饉이 있으리라.
117. 통치자와 국민의 사이가 나쁘며, 疾疫이 많으리라.
118. 통치자와 국민의 사이가 좋으며, 國豊하고 民樂하리라.
119. 통치자가 無道하여 국가에 災亂이 일어나리라.
120. 통치자가 福德을 닦아서 災亂이 소멸하리라.
121. 통치자가 惡德을 행하여 국가가 장차 멸망하게 되리라.
122. 통치자가 善政을 베풀어서 국가가 다시 일어나리라.
123. 피할 곳을 觀함에 危難을 넘기게 됨을 얻으리라.
124. 피할 곳을 觀한다 하더라도 危難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125. 머물고 있는 곳의 처소와 대중이 모두 安穩하리라.
126. 머물고 있는 곳의 처소에 障難이 있으리라.
127. 의지하여 모인 대중들이 편안함을 얻지 못하리라.
128. 閑靜한 곳이 있어서 모든 재난이 없으리라.
129. 怪異한 것을 觀함에 손해 보는 일 없으리라.
130. 怪異한 것을 觀함에 손해를 보게 되리라.
131. 怪異한 것을 觀함에 精進하여 편안함을 얻으리라.
132. 꿈을 꾸 바를 觀함에 損害를 보는 일 없으리라.
133. 꿈을 꾸 바를 觀함에 損害를 보게 되리라.
134. 꿈을 꾸 바를 觀함에 精進하여 편안하다.
135. 꿈을 꾸 바를 觀함에 吉利를 얻게 되리라.
136. 障亂을 觀함에 속히 거기서 떠남을 얻게 되리라.
137. 障亂을 觀함에 겨우 거기서 떠남을 얻게 되리라.
138. 障亂을 觀하더라도 거기서 떠남을 얻지 못하리라.
139. 障亂을 觀할 때, 一心으로써 除滅함을 얻으리라.

140. 厄難이 되는 바를 觀함에 속히 벗어남을 얻으리라.
141. 厄難이 되는 바를 觀함에 오랜 뒤에야 벗어남을 얻으리라.
142. 厄難이 되는 바를 觀함에 衰惱하게 됨을 받으리라.
143. 厄難이 되는 바를 觀함에 精進하여 벗어나게 되리라.
144. 厄難이 되는 바를 觀함에 壽命이 마치게 되리라.
145.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非人과 합치게 되리라.
146.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非人の 苦惱가 있으리라.
147.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非인이 되리라.
148.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治療하여야 하리라.
149.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治療하기 어려우리라.
150.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精進해 가면 고쳐지리라.
151.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장구하게 고통을 받으리라.
152.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저절로 나아지리라.
153.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리라.
154. 治療하는 바를 觀함에 이것을 對治하여야 하리라.
155. 服用하는 바 그 약이 마땅히 힘을 내게 되리라.
156.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除愈됨을 얻으리라.
157. 만나게 되는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리라.
158. 治療하는 바를 觀함에 對治할 것이 아니리라.
159. 服用하는 바 약이 효력을 내지 못하리라.
160. 憂患이 되는 바를 觀함에 壽命이 마치게 되리라.
161. 地獄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왔느니라.
162. 畜生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왔느니라.
163. 餓鬼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왔느니라.
164. 阿修羅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왔느니라.
165. 人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오게 되었느니라.
166. 天道에 있다가 그 속에서 오게 되었느니라.
167. 在家하여 있다가 그 속에서 오게 되었느니라.
168. 出家하여 있다가 그 속에서 오게 되었느니라.
169. 일찌기 부처님 뵈고 공양한 데서 오게 되었느니라.
170. 일찌기 직접 聖賢들을 공양한 데서 오게 되었느니라.
171. 일찌기 길고 묘한 법을 들을 수 있었던 데서 오게 되었느니라.
172.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地獄으로 들어 가게 되리라.

173.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畜生이 되게 되리라.
174.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餓鬼가 되게 되리라.
175.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阿修羅가 되게 되리라.
176.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人道에 나게 되리라.
177.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人王에 오르게 되리라.
178.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天道에 나게 되리라.
179. 이 몸을 버리게 될 때에 天王에 오르게 되리라.
180. 이 몸을 버린 뒤에 길고 묘한 법을 듣게 되리라.
181. 이 몸을 버린 뒤에 출가함을 얻게 되리라.
182. 이 몸을 버린 뒤에 聖僧을 만나게 되리라.
183. 이 몸을 버린 뒤에 兜率天에 나게 되리라.
184. 이 몸을 버린 뒤에 淨佛國土에 나게 되리라.
185. 이 몸을 버린 뒤에 곧 부처님을 뵈게 되리라.
186. 이 몸을 버린 뒤에 下乘法에 머물게 되리라.
187. 이 몸을 버린 뒤에 中乘法에 머물게 되리라.
188. 이 몸을 버린 뒤에 證果를 얻게 되리라.
189. 이 몸을 버린 뒤에 上乘法에 머물게 되리라.

이상과 같음을 一百八十九種의 善惡果報의 差別相이라고 이른다.

‘占察經’에서 밝히기를,

이상과 같은 占法은 마음으로 觀하는 바 主念하는 그 일에 대해서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數의 승쳐 나타남과 자기의 뜻하는 바가 맞을 경우에는 조금도 빛나감이 없는 것이나, 만약 던져서 나온 것을 합한 數와 마음으로 觀하는 바 主念하는 그 일과 맞지 않을 경우에 이것은 至心으로 하지 못한 탓이기 때문에 虛謬 즉 잘못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세번이나 던져서도 전혀 나타남이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미 無所有를 얻었다고 이롭게 된다.

또 만약 스스로 뜻을 발하여 다른 사람이 받은 바 果報를 觀할 때에도 역시 이러한 것은 같은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스스로 占察할 줄을 몰라서 찾아와 占察하여 주기를 바라며 칭하거든 마땅히 잘 자신의 분수를 헤아릴 것이며, 자기의 마음을 관찰하므로써 세상 일을 탐내지 말며, 안으로 뜻을 깨끗이 한 연후에 법다히 歸敬하고 供養하고 修行하고 나서, 지극한 마음으로 원을 발하고 그를 위하여 占察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의 명예와 이익을 탐해 구하는 마음으로 행하거나, 스승인 체 행세하는 태도로 행하거나 하면서 자기 멋대로 어지럽게 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속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占察한다 하더라도 맞지 않으며, 오직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만약 미래 세상의 여러 중생들이 占察하되, 모든 것에 吉善함을 얻지 못하여 갖가지 걱정 근심으로 괴로워 하며 두려워할 때는 마땅히 밤 낮으로 언제나 부지런히 나의 地藏菩薩 이름을 誦念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능이 참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占察하게 된다면, 바로 吉善하게

나타날 것이며, 두엇이든 구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짐을 얻어서, 현 세상에 있어서의 괴로움과 쇠퇴함에서 벗어나라.

고 한다. 道業을 專修하려 하여도 여러 障難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려 苦惱가 많을 때는 이상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木輪相法의 占察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³⁴⁾ 이러한 占察法을 배워서 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至心으로 歸依하고 행하여야만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먼저 自心을 觀察하여 反省하고, 世間の 名利를 생각하지 말며, 內意를 淸淨하게 하고 歸敬供養을 행하고 나서 至心으로 願力을 발한 뒤에 占察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內心이 淸淨하지 못한 사람은 가령 占察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世間の 一切의 諸事는 緣이 합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緣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지만, 業集은 마음에 따라서 現相과 結果를 일으키되, 失壞됨이 없어서 原因에 相應함이 조금도 差違되는 일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道理를 잘 마음에 간직하고 占察한다면, 迷疑하던 일에 대하여 분명한 決了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이상과 같은 올바른 占察方法에 의지하지 않고, 도리혀 世間の 卜筮나 種種의 占相·吉凶 등의 방법을 따르며, 그러한 것들을 익혀서 거기에 재미를 보아 푹빠져버리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일들을 즐겨 익히는 사람은 聖道를 행할 수 있는 因緣을 잃게 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占察相法을 행하는 것은 世間に 있어서의 占卜등과 같이 그저 단순하게 세상의 吉凶福禍를 점치기 위한 것 만이 아니라, 大乘의 菩薩道를 定行하는데 있어서는 末世의 모든 衆生들이 淸淨妙戒인 菩薩戒를 受持하고 勤修하는 것이 근본이 되는 것인데, 宿世에 지은 바 罪惡의 業이 深重하여 여러 가지 障礙가 많아서 戒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懺悔法을 修行하므로써 罪業을 除滅하고 諸障을 遠離하여 戒根을 淸淨하게 하여야 한다. 懺悔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自己의 宿世에 지은 바 罪業의 多少와 輕重을 관찰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木輪의 相法에 의하여 占察를 행하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菩薩戒를 求戒하여 受持하기 위한 前提이어야 함이 重要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眞表의 占察懺悔戒法에 있어서도 新羅의 사람들에게 大乘菩薩戒를 受持시켜서 教化하려는데 근본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衆生으로 하여금 이 大乘菩薩戒를 障礙없이 受持하여 實行할 수 있을만한 淸淨한 戒器로 되게 하기 위하여 懺悔法을 修行시키는 것이며, 衆生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여 이 懺悔를 효과적으로 行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34) '起信論'에 있어서도 실천하여야 할 行에 대하여 施·戒·忍·進의 四行을 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의 戒에 대해서 賢首法藏의 '大乘起信論義記'에서는 이것을 三聚淨戒라고 보고 있으며, 또 除障하는 方便에 대해서도 '起信論'에는 占察法같은 것은 없지만 그 역서 '占察經'에 통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다. (織田得能, '起信論義記講義', p. 542·570·571 參照).

占察法이라고 하는 方便이 依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占察이 일반 민간에 있어서 眞表의 이전에는 修讖求戒하기 위한 占察이 아니라 역시 세상의 吉凶禍福을 점치기 위하여 행해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널리 유행하였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中國에서는 隋의 시대에 유행하다가 마침내 開皇 13年(593)에는 ‘開元釋教錄’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 事件³⁵⁾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 후의 唐·宋·明 등의 각 시대에도 크게 유행하였던 자취³⁶⁾가 있으며, 日本에서도 南宋의 徽宗時代와 같은 시기인 平安朝의 末期頃에는 ‘占察經’이 전해졌던 것이 인정된다고 한다.³⁷⁾

다음에는 新羅에 있어서의 占察에 관한 初期의 記錄과 그리고 新羅에서 眞表가 占察懺悔의 戒法을 확립하여 널리 유행하게 될 때까지 占察法이 어떻게 流布하였으며, 또한 眞表가 어떻게 教化를 행하였고, 그것이 어떻게 後繼者들에게 傳承되었는지에 대한 일들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35) 智昇 ‘開元釋教錄’卷7, (大正藏 55·551·a).

36)·37) 田島德音, ‘占察善惡業報經解題’ 參照(國譯一切經·經集部 15, p. 317).